

전북 농어촌유학생, 3년 새 비약적 상승 관계회복 숙려제 시범 운영

전북교육청, 지난 6~7월 2차에 걸쳐 2학기 유학생 65명 선발·배정
2022년 27명에서 올해 257명으로...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등 결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6~7월 2차에 걸쳐 2학기 전북 농어촌유학생 65명을 선발, 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15명을 비롯해 경기 29명, 울산 5명, 충남 4명, 대구·부산 3명 등이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 농어촌유학생은 2022년 27명으로 시작해 현재 257명으로 3년 만에 10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다. 이같은 성과는 학교별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통한 다채로운 배움은 물론,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가능했다.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으로는 △진안 조립초 아토피 학생 맞춤형 건강지원과 숲체험, 락밴드·골프·다편영화 제작 등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군산 술산초 역사탐방과 승마체험 △익

산 옹포초 골프와 생태체험, 주말농어촌 프로그램 등이 있다. 또한 정읍 이평초는 탄소중립 실천 학교와 AI 교육을, 김제 성덕초는 '같이 그린(Green) 미래'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의 환경 감수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밖에 완주, 무주, 임실, 순창, 부안 등에서도 예술·체육·글로벌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는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는 거주시설을 발굴·지원해 농어촌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농어촌유학은 단순한 전학이 아니라 삶의 전환과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적 대안"이라며 "농어촌유학이 학생들에게는 자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농어촌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월부터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처벌보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학생 간 원만한 갈등 해결과 건강한 학교 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대화와 이해를 통한 관계회복 및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관계회복 숙려제가 시행되면 경미한 사안 발생시 당사자 간 동의를 바탕으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고, 종료시까지 전담기구 심의를 유예한다. 관계회복 결과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등의 사안 절차가 진행된다. 실제, 도내 초등학교 1~3학년의 학교폭력대처심의건수는 2023년 63건, 2024년 62건이었으나 이중 2023년 37.9%, 2024년 51.6%가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나오면서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과 생활교육 권한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올해를 관계중심 생활교육 활성화 원년으로 삼아 관련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충분한 대화와 이해를 통한 관계회복의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며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전북형 관계회복 숙려제'로 특화해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국제개발협력센터(센터장 백숙희)는 3일 JBNU 인터내셔널센터에서 전북 지역 전략 산업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브릿징로컬(Bridging-Local)'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브릿징로컬’ 프로그램 통한 지역기업 해외 진출 지원

전북대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북대학교 국제개발협력센터(센터장 백숙희)는 3일 JBNU 인터내셔널센터에서 전북 지역 전략 산업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브릿징로컬(Bridging-Local)'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브릿징로컬은 KOICA의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플랫폼인 'KOICA 이노포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비수도권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23년에 전북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된 바 있다. 올해는 전북지역 기업들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KOICA 프로그램을 활용해 해외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행사에서는 KOICA 이노포트 사업을 비롯해 KOICA의 예비창업가나 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로 개발도상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프로그램인 CTS·IBS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또한, 선배 기업인 ㈜티알과 베리위즈가 KOICA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을 전하는 특강과 네트워킹을 통해 실질적 노하우를 제공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기업들이 KOICA 사업 참여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FGI와 기업 기술보호 교육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오브제바이오, ㈜티엔티리서치, ㈜에코싱크, 비티텔레콤, ECLA 한국(유) 비비브라운, 스토아트, ㈜에이피그린, ㈜써진, ㈜마스팜, 선한컴퍼니, ㈜엘아이엔티, ㈜크로스허브, 비티에스지, ㈜동승하이테크, ㈜두원글로벌 등 전북지역 기반 중소기업 15개사가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도 함께 자리해 지역기업 지원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참여 기업들을 향후 1:1 맞춤형 컨설팅과 단계별 전문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

을 제공받을 예정이다. 백숙희 센터장은 "이번 브릿징로컬은 전북지역 기업들이 KOICA와 함께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과 ODA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는 2015년 전북대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국제협력단(KOICA) 간 협약으로 설치된 이후 전북지역 ODA 활성화와 협의회 구성, 기업·개인 대상 전문교육 및 컨설팅, 국제개발협력 강좌 개설, 세계시민교육, 대학생 ODA 홍보단 '오다수(ODA수)' 및 동아리 '오다리(ODA리)'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ODA 플랫폼으로서의 임지를 다져왔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해양생물체 기반 전기-기계 상호작용 전북대 강지민 학부생 한일 재료과학 국제포럼 우수발표논문상 수상

전북대학교 정창규 교수(신소재공학부 전자재료공학전공) 연구팀 소속 강지민 학부연구생(3년)이 최근 열린 '제10회 한국-일본 재료과학 및 기술 국제심포지엄'에서 포스터 부문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일본 재료과학 및 기술 국제심포지엄은 양국을 대표하는 재료공학 분야 학술 교류 행사로, 매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개최되고 있다. 일본 도쿄 전기대학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 강 연구생은 해양 생물체 내부의 다공성 구조가 전기적 전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 연구생은 "연구실에 참여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국제 학술대회에서 수상하게 돼 영광"이라며 "지도해준 정창규 교수님과 대학원생 선배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를 계기로 대학원 진학을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지역산업현장 수요 부응 전문인력 배출

전주기전대, 전기공사협회 전북자치도회 등과 협약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지난 2일 본교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이재수),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최병희)와 각각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주기전대학 혁신융합 캠퍼스 2차전지소재부품과의 인제 양성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 인력 배출을 목표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실무형 취업역량 강화, △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함께 추진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 전주기전대학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과 양 협회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다. 조희천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대학 교육과 지역 산업 수요를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2차전지소재부품을 비롯한 신산업 분야에서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전북장애인복지관수영장에 탈수기 기증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3일 사회복지법인 동안(대표 양복규)이 위탁 운영하는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관장 강병은) 수영장에 탈수기 3대(60만 원 상당)를 기증했다고 전했다. 이번 후원에 입학홍보처 임직원도 함께 뜻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복지관 수영장은 도내 장애인과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재활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기존 탈수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전주비전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나섰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국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